

18km 유럽 해저터널 본공사 돌입... 핵심 침설장비 승인 완료

해당국가	덴마크	기관(기업)	Femern A/S(덴마크 국영 기업)	동향분야	기술	국토교통 기술분류	건축
------	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

- 덴마크와 독일을 연결하는 페마른벨트 고정연결 사업은 침설 전용 특수선박 IVY가 최종 시험을 통과하고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첫 터널 함체 설치를 위한 준비 단계에 진입
 - 함체 침설 장비 IVY는 덴마크 해사청의 승인을 받아 2026년 봄 첫 번째 터널 함체 침설을 위한 현장 작업 추진
 - 시공사 FLC(Femern Link Contractors)는 롤란드 해안 앞 준설된 터널 구간에서 첫 함체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
 - IVY는 두 개의 독립 폰툰(IVY 1·2)으로 구성되며 표준 함체(길이 217m)와 특수 함체(길이 39m)에 맞춰 분리 또는 결합 운용 가능
 - 침설 공정 수행을 위한 장비 시험과 해저 기초 준비 작업이 함께 진행되며 본격 시공 여건 마련
 - IVY는 총 23km 강선과 66개 원치를 활용해 최대 수심 40m 구간까지 함체를 정밀하게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최종 시험을 완료
 - 침설 예정 구간에는 균일한 자갈 기초층이 조성되었으며, 함체에는 발라스트 콘크리트를 주입해 침설에 필요한 중량을 확보할 계획
- 페마른벨트 사업은 유럽의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 중 하나로, 완공 시 덴마크와 독일 간 도로·철도 연결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
 - 해저터널 구축을 통해 이동 시간 단축과 지역 간 교통·물류 연계 강화를 추진하며 북유럽과 중부 유럽 간 연결성 제고 기대
 - 완공 시 터널은 4차선 도로와 전철화 복선 철도를 포함하는 복합 교통 인프라로 운영될 예정이며 도로·철도 동시 활용이 가능한 연결축으로 기능
 - 차량 이동 시간은 약 10분, 열차 이동 시간은 약 7분으로 단축되어 덴마크와 독일 간 이동 편의성 향상과 물류 흐름 개선 기대
 - 향후 첫 함체 설치 이후 동일한 침설 공정을 반복 수행하며 전체 터널 구조물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후속 공정의 안정적 진행 기반 마련
 - 첫 함체 설치 이후 나머지 터널 함체 설치 작업이 총 88회 추가 진행될 예정이며 순차적인 침설 공정을 통해 전체 구조물 완성 추진
 - 발주기관은 첫 함체 설치 이후 향후 공정 일정에 대한 추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며 후속 시공 일정도 이에 맞춰 조정 예정

※ 출처 : Femern A/S(2026.04.02.), Immersion pontoon IVY passes final test and receives approval